

Keats의 소넷에서 발견되는 Shakespeare 소넷으로 부터의 모방 양태

박 옥 선*

Aspects of imitation from Shakespeare's sonnets in Keats' sonnets

Ok-Sun Park

Abstract

This study reveals that Shakespeare exerted a shaping influence upon Keats' artistic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within the sonnet medium.

Keats' early sonnets show not only an increasing movement toward Shakespearean themes, imagery, and philosophy but also Shakespeare's growing influence on Keats' style and form. This influence is apparent in structural similarities, imagistic movements, and rhetorical patterns and devices.

In his later sonnets Keats focused with even greater intensity upon Shakespeare. Of 28 sonnets, 17 follow the Shakespearean form and all contain strong Shakespearean characteristics. This group of sonnets closely follow Shakespearean metrical and rhetorical patterns - assonance, alliteration, repetition - to gain musical felicity as well as balance, unity, tonal firmness, and integrity of structure. In Keats' later sonnets Shakespeare also emerges as a mentor in the development of Keats' philosophy of life and art. Through the concept of negative capability, Keats relates art to reality.

As a literary model, Shakespeare helped Keats to clarify the nature of poetry and the poet, develop aesthetic and philosophical concepts, and master the craft of poetry. Keats claimed Shakespeare as his presider and utilized him for artistic guidance, and received consolation through his understanding of Shakespeare's philosophy.

* 한국해양대학교

I.

Keats가 쓴 64편의 소넷 가운데 36편은 초기의 것 즉 1817년 3월경에 쓴 것이고 나머지 28편은 1817년 4월 15일 무렵에 썼거나 1819년 말 Keats가 다른 시형식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던 시기에 쓴 것이다. 키츠의 초기시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영향이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Leigh Hunt의 영향이 매우 컸던 시기이고 또한 키츠 자신이 셰익스피어의 심미적 철학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 시적 경험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작활동 초기는 약제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1817년에 발표한 초기시에서도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셰익스피어의 스타일과 방법으로부터의 영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키츠가 엘리자베스 시인들로부터 전통적인 시작법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한 의도의 일환으로 보아진다.

키츠가 셰익스피어 뿐만 아니고 다른 엘리자베스 시인들의 영향을 받았음은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셰익스피어의 모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은 그의 소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819년에 쓴 28편은 셰익스피어적인 특징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초기에 쓴 몇 편의 소넷을 포함해서 그의 다수의 소넷은 물론이고 다른 형식의 시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시적 특질, 즉 극적 장치, 주제에 있어서의 범위 확대, 언어의 풍부등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셰익스피어의 시적 원리와 철학적 개념은 *King Lear*와 *Midsummer Night's Dream*에서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키츠의 소넷만을 대상으로 해서 셰익스피어의 소넷으로 부터 어떤 모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키츠가 자신의 개성적인 소넷쓰기를 위해 전통, 특히 위대한 선배로부터의 배우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II.

키츠의 소넷 가운데 9편 정도는 명예, 사랑, 시간, 죽음 등의 셰익스피어가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주제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When I have fears that I may cease to be,” “Time’s sea hath been five years at its slow ebb,” “Four seasons fill the measure of the year,” “Bright star, would I were stedfast as thou art” 등은 인간의 노력에 있어서의 시간의 결과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 주제는 셰익스피어가 소넷에서 다룬 일차적인 주제인 것이다.. 특히 “When I have fears that I may caese to be”는 키츠가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의 시를 모방하려고 했나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키츠가 영국식 즉 셰익스피어식으로 쓴 첫 소넷작품이다.

When I have fears that I may cease to be
 Before my pen has gleaned my teeming brain,
 Before high-piléd books, in charactery,
 Hold like rich garners the full ripened grain ;
 When I behold, upon the night’s starred face,

Huge cloudy symbols of a high romance,
 And think that I may never live to trace
 Their shadows with the magic hand of chance ;
 And when I feel, fair creature of an hour,
 That I shall never look upon thee more,
 Never have relish in the fairy power
 Of unreflecting love ; then on the shore
 Of the wide world I stand alone think
 Till love and fame to nothingness do sink.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넷에서 다루었던 주제 즉 인생무상(mutability)과 세상의 덧없음(mortality)을 극복하기위한 수단으로 사랑과 예술로서의 시를 두가지 대안으로 내세웠던 점과 이 시의 주제는 너무나 닮아 있다. 우선 첫 quatrain 에는 시인 자신의 시적 성숙을 이루기도 전에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짙게 베어 있다.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완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심상은 4행의 익은 곡식으로 가득한 광 “rich garners the full ripened grain”, 과 높이 쌓인 책들이 그가 쓰는 문자와 작품을 담아두는 저장고로 표현되고 있는 심상들이다. 두 번째 quatrain에서는 시를 쓰는 상상의 과정과 자신의 원대한 야망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심상은 지상의 세계에서 천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상한 로맨스에관한 엄청난 구름긴 상징들”을 지닌 “별이 총총한 밤의 얼굴”은 시인이 아직 쓰지 못한 무수한 시편들의 창작 잠재성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시간은 두가지 차원에서 절실한 요소가 되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쓰고자하는 작품 모두를 쓰도록 허용하는 양적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의 원숙을 기하고 자신의 사상을 시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법의 숙달을 기할 수 있는 질적 시간이다. 세 번째 quatrain 에서는 시인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대상, 즉 이루지 못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키츠는 시간과 사랑의 관계를 놓고 세가지 관심사를 다룬다. 첫째 “한시간의 아름다운 피조물(fair creature of an hour)”이라는 어구를 통해서 시를 통해 구현되는 미의 무상함을 나타내고자 한다. 둘째로 시간이 시인 자신과 그의 연인 사이를 언젠가는 갈라놓을 것이라는 점과 그의 사후에는 연인을 만날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그는 무상(transience)을 깨달음으로써 무분별한 사랑의 유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은 찰라적인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Chatterjee의 표현에 의하면 “thought-ridden, time-ridden existence”(282), 즉 인생이란 사유에 짓눌리고 시간에 시달리는 존재임을 시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시의 결구 부분도 셰익스피어의 소넷 몇편과 매우 닮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첫 quatrain은 시간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셰익스피어 소넷 12번의 서두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When I do count the clock that tells the time,
 And see the brave day sunk in hideous night,
 When I behold the violet past prime,

And sable curls all silvered o'er with white,

또한 키츠의 첫 1,2행은 셰익스피어의 107번과 매우 유사하다.

Not mine own fears, nor the prophetic soul
Of the wide world, dreaming on things to come ...

Allott 는 키츠의 “When I have fears...” 와 셰익스피어의 12, 104번 소넛은 주제의 유사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말한다.(297)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넛에서 다룬 주제의 틀은 “사랑과 야심의 불확실한 차용기간이 제한된 운명에 너무나 빨리 몰수되고 말았다” (Bate, 291) 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sonnet 64이다.

When I have seen by time's fell hand defaced
The rich proud cost of outworn buried age,
When sometime lofty towers I see down razed,
And brass eternal slave to mortal rage,
When I have seen the hungry ocean gain
Advantage on the kingdom of the shore,
And the firm soil win of the watery main,
Increasing store with loss, and loss with store,
When I have seen such interchange of state,
Or state itself confounded to decay,
Ruin hath taught me thus to ruminare,
That time will come and take my love away.
This thought is as a death, which cannot choose
But weep to have that which it fears to lose.

앞의 키츠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 소넛에서도 사랑, 시간, 예술을 연결짓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 두 시를 읽은 후의 효과는 사뭇 다르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는 시간이 결국은 시인의 연인을 앗아가리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지만 키츠의 관심사는 시간 때문에 시인의 시적 완성과 야심의 성취를 방해할 것이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첫 quatrain 에서 시간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 즉 호화롭던 옛시대의 매물, 높은 탑, 영원히 남을 동상등이 시간에 의해 파괴된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 quatrain은 시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굶주린 대양이 해변의 왕국을 멸하고 견고한 땅을 먹어나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quatrain에서는 마침내 시간이 시인의 연인마저도 앗아가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마지막 절구에서 인간의 생존과 노력의 불가피한 무상(mutability)을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시인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키츠는 보편적인 예술보다는 자기만의 예술 즉 시와 자신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

(mortality)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1, 2 quatrain에서 자신의 예술적 잠재력을 꽃피우지도 못한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표현하고 3 quatrain에서는 연인('fair creature of an hour')의 죽음에 앞서 시인 자신의 죽음이 올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던지면서 사랑의 덧없음을 노래한다. 마지막 결구에서는 사랑과 명예를 잃은채 넓은 세상('on the shore of the wide world')에 홀로 서 있는 시인의 고립, 절망, 고독의 이미지를 던짐으로써 셰익스피어의 64번 소넷보다 훨씬 더 강렬한 효과를 내고 있다. 비록 이미지의 차용이나 주제의 선택에서 셰익스피어를 모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시의 효과면에서의 그러한 차이들은 키츠가 모방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셰익스피어의 기법을 터득하고 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키츠의 영국식 소넷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인 "Time's sea hath been five years at its slow ebb"은 셰익스피어 모방이 더욱 강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키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키츠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셰익스피어적인 시" (De Selincourt, 544)이며 시의 리듬, 어구 반복, 감정 구조, 절정을 향한 시의 흐름의 처리법이 셰익스피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시법과 문체상으로도 가장 셰익스피어적이다.(Bate, 298) 그밖에 주제에 있어서 시간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어구에 있어서도 셰익스피어의 소넷 60, 98, 104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Allott, 306)

'Time's Sea'의 도입부

Time's sea hath been five years at its slow ebb,
Long hours have to and fro let creep the sand,

는 셰익스피어 소넷 60의 도입부

Like as the waves make towards the pebbled shore,
So do our minutes hasten to their end,

와 비슷하다. 두 소넷 모두 시간의 잔인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바다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해안에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의 울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 또한 키츠의 7-10행

I cannot look upon the rose's dye,
But to thy cheek my soul doth take its flight.
I cannot look on any budding flower,
But my fond ear, in fancy at thy lips

는 셰익스피어 소넷 98의 다음 부분과 아주 유사하다.

Nor did I wonder at the lily's white,
Nor praise the deep vermilion in the rose ;
They were but sweet, but figures of delight,

Drawn after you, you pattern of all those. (ll. 9 - 11)

마지막으로 키츠의 결구는 셰익스피어 소넷 104의 결구를 모방하고 있음이 현저하게 드러나 있다.

Thou dost eclipse

Every delight with sweet remembering

And grief unto my darling joys doth bring (Time's Sea, 12 - 14)

So your sweet hue, which methinks still doth stand,

Hath motion, and mine eye may be deceived :

For fear of which, hear this, thou age unbred,

Ere you were born was beauty's summer dead. (104, ll. 11 - 14)

이와같이 키츠와 셰익스피어 사이에는 동일한 주제를 동일한 시형식인 소넷에 의해 표현하면서 어구의 사용과 이미지선택에 있어서도 뚜렷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각 소넷이 겨냥하는 목표는 달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키츠의 첫 quatrain 3,4행에서 시인은 5년전 얼핏 본 사랑스런 여인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거미줄(*beauty's web*)에 걸려있다(*tangled*)고 고백하고 있다. 그때 보았던 그녀의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한밤중의 하늘, 장미의 색채, 움트는 꽃 등등의 자연의 아름다움들이 그녀에 대한 기억들을 일깨우고 그 기억은 자연의 그러한 기쁨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하며 그녀의 부재를 더욱 슬퍼하게 만든다. 셰익스피어의 여러 소넷들이 - 27, 28, 43, 44, 50 - 연인과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연인의 아름다움의 희생자가 된 시인이라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없다. 셰익스피어는 미청년에 대한 아폴로적 사랑과 육욕의 화신으로서의 흑부인(*dark lady*) 과의 디오니소스적 사랑 사이에서 번민하고 마침내는 육욕의 사랑에 대한 욕망의 희생자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키츠는 아름다움의 함정에 빠져 초월적 미에서 행복을 느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적인 특징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키츠의 또 다른 시로 "Four seasons fill the measure of the year"가 있다. 이 시는 1818년 3월 13일 Benjamin Bailey에게 보낸 서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키츠는 실재(*reality*)의 본질을 논하면서 영묘한 실체(*ethereal things*)를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Allot, 312) 그는 그것을 실재적인 것(*things real*), 반 실재적인 것(*things semireal*), 무실재(*no things*)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Things real - such as existences of the sun, moon, and stars and passages from Shakespeare-
Things semireal such as love, the clouds, and company which require a greeting of the spirit to
make them wholly exist - and nothings which are made great and dignified by ardent pursuit.
(Ibid)

이 서신에서 키츠는 Bailey와는 정반대인 종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Bailey의

경우 워즈워드식 기독교적 인도주의를 인정했고 이것을 키츠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것이다. 키츠는 “세상의 그 어느것도 입증할 수 없으며” 심지어 시마저도 “우연히 그 시의 뛰어난 감동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호박초롱(Jack a Lantern)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Letters, 243) 키츠의 생각으로는 개인의 견해가 하나의 개념(idea)에 가치를 부여하며, 따라서 “모든 정신적 추구는 그 추구자의 열의에서 그 실체와 가치를 얻게 된다”(Ibid) 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키츠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수용성(negative capability)의 원리를 종교적 신념에 적용하고 미리 정해진 원리(prefixed doctrines)의 수용 보다는 열려있고 수용적인 정신을 옹호한다. ‘Four seasons’를 언급하면서 키츠는 “나는 여기에 약간 부차적인 본질(collateral nature)에 관한 소넷을 한 편 썼다”(Ibid) 고 적고 있다.

키츠가 그 서신에서 Bailey에게 말했던 개념에 대해 부차적 본질이라고 한 것은 이 소넷의 주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일생의 단계들을 계절의 변화와 비교한 것으로 이는 일관된 세익스피어적인 접근이다. 그 기본 개념은 곧 인생이란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각 발달단계마다 개인의 삶을 더더욱 풍요롭게 하고 보다 더 큰 오성으로 이끄는 그 나뭇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기왕성한 봄에는 마음이 자유롭고 명쾌하고 열려있으며 환상이 저절로 모든 아름다움에 넉넉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여름에는 마음이 화려하게 확장되어서 어린 시절에는 아무 생각없이 흡수했던 모든 것들을 의식속으로 동화될 때까지 보다 사려깊게 생각하게 된다. 가을에는 마음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여, 더 이상 감각과 지식을 얻기 위해 불안하게 노력하지 않으며 마음이 현명한 수동성에서 쉴 수 있고 인생의 모든 국면을 사욕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정착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마음은 신처럼, 완강한 노력없이도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게되고 나태속에서 알 수 없는 신비를 만족스레 바라보게되며 아름다운 것들이 지나감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성숙은 수용하고, 인내하며, 독단을 삼가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청춘의 활력과 성숙한 힘이 서서히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시기이며 또한 인간 필멸의 본질의 한 부분으로서 수용되어야 하는 자연의 계절이기도 하다.

Four seasons fill the measure of the year ;

There are four seasons in the mind of man.

He has his lusty spring, when fancy clear

Takes in all beauty with an easy span.

He has his summer, when luxuriously

Spring's honeyed cud of youthful thought he loves

His nearest unto heaven. Quiet coves

To ruminate, and by such dreaming nigh

His soul has in its autumn, when his wings

He furlth close, contented so to look

On mists in idleness - to let fair things

Pass by unheeded as a threshold brook ;

He has his winter, too, of pale misfeature,
Or else he would forego his mortal nature.

키츠는 인간의 삶을 사계절의 과정에 비유함으로써 청춘, 성숙, 노쇠라는 인생의 각 단계가 계절이라는 자연의 과정과 일치하는 흐름속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탐색하고 있다. 이것은 두달 후에 Reynolds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서신에서 그는 인생을 수많은 방이 잇달아 있는 맨션에 비유하고 정신이 여러 방을 통과하면서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다. Hubert Heinen (385) 은 인간의 삶을 사계절에 비유한 것이나 맨션(mansion of many apartment)에 비유한 것을 아주 긴밀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워즈워드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Bailey의 원론적 접근과는 달리 키츠의 이러한 견해는 그 소극적 수용력에 있어서 다분히 세익스피어적이다. 세익스피어에 있어 무상(mutability)과 덧없음(transience)이라는 주제는 완성을 향해 익어가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맺는 삶의 사이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계절을 연계시킨 키츠의 소넷 'Four seasons' 는 세익스피어의 소넷 12번과 많은 부분에서 심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en I do count the clock that tells the time,
And see the brave day sunk in hideous night,
When I behold the violet past prime,
And sable curls all silvered o'er with white,
When lofty trees I see barren of leaves,
Which erst from heat did canopy the herd,
And summer's green all girded up in sheaves
Borne on the bier with white and bristly beard ;
Then of thy beauty do I question make
That thou among the wastes of time must go,
Since sweets and beauties do themselves forsake,
And die as fast as they see others grow,
And nothing 'gainst time's scythe can make defence
Save breed to brave him when he takes thee hence.

3행의 “지나간 보랏빛 청춘”, 4행의 “백발이 되어버린 검은 머리칼”, 5행의 “잎이 저버린 키 큰 나무”, “다발로 묶인 여름의 풀” 등은 모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계절의 심상들이다. 세익스피어의 것이 비관적이며 슬픈 어조가 강하고 인간의 삶이 너무나 덧없고 아름다움의 수명이 짧다는 데 대한 탄식이 강하지만 키츠의 경우 순환의 근본적인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두 시인 모두가 시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키츠가 연인이었던 Fanny Brawne을 노래한 “Bright star! Would I were steadfast as thou art” 는 사랑과 시간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세익스피어를 모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넷이다.

Bright star! Would I were stedfast as thou art -
 Not in lone splendour hung aloft the night
 And watching, with eternal lids apart,
 Like nature's patient, sleepless eremite,
 The moving waters at their priestlike task
 Of pure ablution round earth's human shores,
 Or gazing on the new soft - fallen mask
 Of snow upon the mountains and the moors ;
 No - Yet still steadfast, still unchangeable,
 Pillowed upon my fair love's ripening breast,
 To feel for ever its soft fall and swell,
 Awake for ever in a sweet unrest, Still,
 still to hear her tender-taken breath,
 And so live ever-or else swoon to death.

이 소넷의 압운은 셰익스피어식을 따르고 있지만 의미전개는 페트라르카식, 즉 octave와 sestet으로 되어 있다. octave에서 시인은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별의 특질을 묘사하면서 확장된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 행에서는 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평안과 안정을 갖고 있으며 변함없고 의연한 상징으로서의 별을 둔호법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뒤이어 7개 행에서는 이러한 별의 특성들이 확대되고 하늘 높이 걸린 외롭게 찬란한 별의 외딴 위치를 묘사한다. 그 뒤 sestet에서는 별의 불변하는 특질과 함께 온정, 즐거움, 감각적인 아름다움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에 대한 욕망을 함께 그리고 있다.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이 소넷에서도 의미전개는 보편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나아간다. 셰익스피어의 전형적인 방법은 하나의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자연과 인간의 의도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속성을 먼저 전개한다. Sonnet 65에서 보편 사랑하는 연인의 삶과 아름다움이 시간의 파괴작용으로 인해 마멸되어간다는 슬픔을 노래하기 전에 대체로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돌, 황동, 대지, 바다, 바위, 강철 등에 미치는 시간의 무차별적 파괴작용을 먼저 이미지화하고 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에 있어서 너무나 보편적인 그 만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Since brass, nor stone, nor earth, nor boundless sea,
 But sad mortality o'ersways their power,
 How with this rage shall beauty hold a plea,
 Whose action is no stronger than a flower?
 O, how shall summer's honey breath hold out
 Against the wrackful siege of batt'ring days,
 When rocks impregnable are not so stout,
 Nor gates of steel so strong, but Time decays?
 O fearful meditation! Where, alack,

Shall Time's best jewel from Time's chest lie hid?
 Or what strong hand can hold his swift foot back?
 Or who his spoil of beauty can forbid?
 O, none! unless this miracle have might,
 That in black ink my love may still shine bright. (Sonnet, 65)

키츠의 'Bright star'는 바로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소넷 전개방식을 모방하고 있다. 'Bright star'의 2행에서 "홀로 찬란한 별"은 다음 행으로 이어지면서 5행의 "성직자다운 임무를 띠고 흘러가는 바다"가 "인간의 해안"을 벗어나고 "새로이 부드럽게 내리는 눈이 산과 황야를 가리는" 자연의 장엄한 작용을 지켜보는 존재이다. 그러한 별은 곧 "끈기있고 잠들지 않는 은자"의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서의 보편적 이미지는 그 다음 *sestet*에서 인간의 경우에 적용됨으로써 특수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름다운 연인의 품만한 가슴"을 벤 채 여인의 숨결을 영원히 느끼고 싶은 시인은 영원히 불변 부동인 별처럼 연인의 존재도 변함없이 안정된 존재이기를 열망한다.

'Bright Star'는 키츠가 시인으로서 가장 원숙했던 시기에 쓴 시로서 셰익스피어로부터 차용한 미학적 철학을 나름대로 소화, 융합한 시로 평가받고 있다. 셰익스피어를 모방은 했으며 자신의 철학적 원리를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Alien War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contemplating consciousness here imaged in the star, the abstract calm of some 'superior being' looking down on the vicissitudes of earth, is implicit in (its) negative capability, ...poetic identity, and... ultimate vision in which truth and beauty become one. (298)

*Ward*는 키츠와 셰익스피어의 미학적 견해상의 차이를 주목하고 키츠가 "이 시에서 별과 연인을 묶으려 한 연결고리들은 무의식으로 빠져들 마지막 찰라에 저지당하고 있다"(300)는 것이다. "And so live ever or else swoon to death"는 현실과의 단절, 다시 말해서 연인의 가슴에 누운 강렬한 쾌락의 순간을 무한정 연장시키고 싶은 열망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키츠는 별이 가진 불변의 특성을 자신의 절정에 이른 감정의 경험을 포착하여 지속시키려는 열망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1817년 11월 *Bailey*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보다 멋진 상태(*finer tone*)로 되풀이되는 지상의 행복을 천국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천국의 상태는 상상을 통해 인생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Letters*, 1: 185) 키츠는 이러한 보다 멋진 상태의 반복이 상상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경험 공유의 상승과 하강, 성숙과 쇠퇴의 과정을 저지하려고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는 성숙의 정점에서 궁극적 미와 쾌락의 순간을 포착, 유지하며, 그 과정에 몰입함으로써 초월적인 결합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 결합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멀하는 것과 불멸하는 것이 융합되고, 결과적으로 변하는 것은 불변이 되며 멀하는 것은 천국의 동굴에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 키츠는 미란 경험에의 참여가 어느정도 강렬한가 하는 강도에 의해 측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강렬함의 정점을 견지하고 현실의 차가운 언덕으로 하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다. 키츠에게 있어 그 방법이란 강렬한 몰입과, 결국은 자기부정 즉 "a swooning death"를 결과하는 단호한 동일시이다. 이러한

견해는 키츠의 독자적인 것으로 이에 의하면 죽음은 곧 완성이자 도피 (consummation and escape)가 된다. (Chatterjee, 401) 이것이 바로 sestet에 표현되어 있는 키츠의 기본이념이다.

... through the dissolution of consciousness he may achieve a reconciliation of contraries-repose and ardour, detachment and earnest involvement, changelessness and the intensity of human passion. (Chatterjee, 402)

의식의 분해야말로 대립적인것들을 융합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하는 존재를, 필멸의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Leishman, 109) 키츠는 영속성이 고동치는 욕망의 리듬과 조화될 수 있는 절정의 순간을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원성을 달성하기 위해 깨달음이 없는 허공상태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Endymion*에서도 나타나 있고 “Bright star”를 쓴 이후 점차 발전되어 “Ode to a Nightingale”에서 완성되기에 이른다.

위에서 예로 든 시 이외에 셰익스피어 형식으로 쓴 다른 소넷에서 키츠는 그의 시적 원리 즉 *negative capability*의 구현을 꾀하고 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에 내재해서 위대한 작품들을 낳게 한 것이며 워즈워드의 소위 *wise passiveness*와도 유사한, 시적 상황과 시인 자신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모든 진실을 객관적으로 의미있게 표현하는 시인의 능력인 것이다. 이 능력을 셰익스피어에게서 끌어와 소화한 키츠는 삶을 전체로서, 다시 말하면, 변화(*mutability*), 무상(*transience*), 죽음(*morality*)의 과정을 겪는 삶의 법칙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슬픔, 비애, 기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키츠가 셰익스피어에게서 채용한 또 하나의 미적 개념은 시적 상황의 핵심을 포착하는 강렬함의 원칙이다. 이 상황하에서는 시인은 시적 경험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자아는 소멸해 버리게 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시인은 자신의 시적 기교를 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 보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을 위해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Shelley의 시가 이상사회를 선전하는데 급급한 것에 불만을 가진 키츠는 셸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Your will, I am sure, forgive me for sincerely remarking that you might curb your magnanimity, and be more of an artist, and load every rift of your subject with ore.” (Letters, 2 : 323) 라 했고 시의 철학적 요소를 싫어한 나머지 워즈워드를 비난했던 것이다. 셸리에게 주제의 틈 하나하나를 황금으로 채우라고 한 키츠에게 있어서 미와 진실의 표현은 그의 궁극적 목표였던 것이다. Bate가 “simultaneously gratifies the imagination and the intellect with beauty and truth”(Bate, 2) 라고 말한 바와 같은 것이다. 키츠는 이렇게 자신의 시적 원리인 강렬함(*intensity*)과 셰익스피어에게서 배운 소극적 수용능력을 시작에 적용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무운 소넷 “O thou whose face hath felt the winter is wind”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O thou whose face hath felt the winter's wind,
Whose eye has seen the snow-clouds hung in mist,

And the black elm tops 'mong the freezing stars,
To thee the spring will be a harvest-time. O thou,
whose only book has been the light
Of supreme darkness which thou feddest on
Night after night when Phoebus was away,
To thee the spring shall be a triple morn.
Oh, fret not after knowledge - I have none,
And yet the evening listens. He who saddens
At thought of idleness cannot be idle,
And he's awake who thinks himself asleep.

Murry에 의하면 이 소넷에서 개똥지빠귀의 메시지는 *negative capability*에 대한 키츠의 사상과 "his renunciation of all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and reason" (Murry, 62) 인 것이다. 키츠는 인간이 "지식을 얻으려 안달해서도" 나태의 시기에의해 방해받아서도 안되며 개똥지빠귀처럼 마음을 열고 객관적인 상상을 수용해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은유를 개똥지빠귀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그는 개똥지빠귀의 근면성이 다양한 지식을 얻도록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수동성을 나태와 게으름 보다는 수용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평자들은 이 소넷의 철학과 워즈워드의 *wise passiveness*와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키츠가 호반시인 워즈워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이해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분위기는 명백하게 셰익스피어적이다. 우선 리듬형식이 셰익스피어와 닮아 있다.

...The rhythm of the second quatrain repeats that of the first ; but in the third quatrain the rhythm changes , the rhythm of the second half of the quatrain repeating that of the first half, and the sonnet ends with a reflection in the manner of the Shakespearean sonnet. (Finney, 1 : 369)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유사하다. 위 인용에서 1 - 3행은 다음의 셰익스피어 소넷 73을 떠올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That time of year thou may'st in me behold
When yellow leaves, or none, or few do hang
Upon those boughs that shake against the cold,
Bare ruin'd choirs, where late the sweet birds sang...

이 두 부분은 모두 새의 심상을 이용하고 있고 황량한 겨울 정경을 배경으로 한 나무의 불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 "깨어 있으면서 스스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구절은 외관과 실제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넷에서 끊임없이 다루었던 것이 바로 이 외관과 실제의 이원적 심상이었던 것을 미루어 보면 키츠는 이에 있어서도 셰익스피어를 스승으로 삼았음이 분명해진다.

키츠는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를 자신의 시적 개념 정립을 위한 안내자 내지는 스승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자기 나름의 시 형식과 기법을 숙달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소넷 구조의 통일성, 일관성, 완전무결성을 얻기 위해 셰익스피어 기법의 많은 부분을 모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키츠는 셰익스피어식 소넷 형식과 스타일, 율격의 일관성, 다시 말해서 세 개의 quatrain과 결구인 couplet이 엄격하게 각운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그것은 수사적으로도 동시에 분리되어 있으며 율격이 약강의 5음보 틀을 고수하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일관성과 통일성, 나아가서 흡잡을 데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전체성을 얻고 있는데에 주목하고 이를 터득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음이 Bate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Bate는 그 근거로 키츠의 16편의 영국식 소넷 가운데서 56%에 달하는 9 편이 엄격한 셰익스피어식으로 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Bate, *Stylistic Development*, 119) 키츠의 초기 소넷과 셰익스피어식으로 쓴 후기 소넷의 율격상의 차이를 들면서 행말 잇기(run-on lines)가 30.9%에서 19.3%로, 여성 행말(feminine ending)이 8.4%에서 3.8%로 줄어든 반면, 첫행의 도치 음보(inverted foot)가 5.2%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Bate, *Ibid.*, 120)

키츠는 형식과 율격뿐만 아니라 구조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셰익스피어를 모방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시의 끝을 염두에 두고 서두를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첫 두 행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 두 행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 내지는 해답을 던지고 있는데 키츠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키츠의 “Read me a lesson, Muse, and speak it aloud” 는 바로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기법을 답습한 좋은 본보기이다.

Read me a lesson, Muse, and speak it aloud
Upon the top of Nevis, blind is mist!

.....
Is mist and crag, not only on this height,
But in the world of thought and mental might!

키츠는 또한 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일 시 행 내에서나 시 행들 사이에서 단어를 반복하는 데서도 셰익스피어를 모방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What can mine own praise to mine own self bring?/ And what is't but mine own when I praise thee?” 에서 mine own과 praise의 반복은 시의 의미 전개에 균형을 이루는 구실을 한다. 키츠의 “The day is gone and all its sweets are gone/ Sweet voice, sweet lips, soft hand, and softer breast.” 에서 sweet와 soft의 반복도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의 시적 구조, 율격, 수사적 장치 등에 있어서 명백해지고 있는 키츠의 모방은 Bate 뿐만 아니라 L.C. Knights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그는 특히 alliteration의 사용에 있어서 Keats가 셰익스피어로 부터 배운 바가 컸음을 주목하고 있다. Sonnet 35에서 alliteration과 assonance는 음악적 장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적 경험을 생생하게 살려서 독자들의 마음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조(tone)의 전환을 위한 역할도 한다.

...In the first quatrain the play upon the letters l and s is mainly musical and decorative, but with the change of tone and direction the alliterative s becomes a hiss of half-impotent venom :

All men make faults, and even I in this,
Authorizing thy trespass with compare,
Myself corrupting salving thy amisse,
Excusing thy sins more then they sins are :
For to my sensual fault I bringin sense...

The scorn is moderated here, but is still heard in the slightly rasping note of the last line,

To that sweete thiefe which sourly robs from me. (Knights, 85)

키츠의 “On Sitting Down to Read King Lear Once Again”은 바로 음악적 표현과 톤의 전환을 위해 자운과 모운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

O golden-tonged Romance, with serene lute!
Fair plumed Siren, Queen of far-away!
Leave melodizing on this wintry day,
Shut up thine olden pages, and be mute.
Adieu! For, once again, the fierce dispute
Betwixt damnation and impassioned clay
Must I burn through, once more humbly assay
The bitter-sweet of this Shakespearian fruit.

o 음과 u 음의 모운과 s 음의 두운이 번갈아 들면서 음악성을 돋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serene) 훌륭한(golden), 그러나 먼 로맨스의 구슬픈 어조를 자아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 ‘Adieu’는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것과의 사무치게 미련이 남으면서도 시들어져가는 작별을 환기시킨다. 제 2 quatrain에서도 위와 같은 모음이 이중모음 /ei/와 결합되어서 새로운 흥미와 그 본질의 밀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키츠는 음악적인 효과를 내고 경험의 본질을 그리면서 동시에 톤의 전환 방향 변화를 위해 셰익스피어가 썼던 방법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 구조의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을 얻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견고성, 밀접성, 예술적 거리등을 자신의 소넷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결국 셰익스피어적인 방법들이 가장 자신에게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셰익스피어식 소넷에의 숙달을 위해 키츠가 했던 이러한 여러 모방을 통한 실험들은 그의 창작활동에 있어서의 훈련과정의 일부이며 이로 인해 그는 결국 후기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내어놓기에 이른다. 이 훈련을 통해서 키츠는 일관성과 다양성을, 내용과 구조를 융합할 줄을 알게된 것이며, 또한 소넷 형식에의 숙달이 있었기에 간결한 시형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제약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비록 소넷이라는 시 장르가 키츠의 서정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배출구가 되기는 했지만 그의 기본적인 자질은 Bate가 말한대로 “too richly grave and weightly majestic in temper” (Bate : *Stylistic Development*, 125) 했기 때문에 소넷이라는 제약된 구조에서 적절한 표현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그는 완전히 다른 시 형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넷에서 즉흥시를 시도하게 된다. 이 방향전환은 그의 개성과 독창성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데 세 편의 실험적인 소넷에서 그는 기존의 소넷형식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압운형식을 모색하게 된다. 1819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쓴 서신에서 기존의 형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 I have been endeavouring to discover a better sonnet stanza than we have. The legitimate (Petrarchan) does not suit the language over-well from the pouncing rhymes – the other kind (The Shakespearan) appears too elegiac – and the couplet at the end seldom has a pleasing effect – I do not pretend to have succeeded – it will explain itself. (Letters, 2 : 108)

이 서신을 쓴 이후에 발표된 그의 소넷 ‘If by dull rhymes our English must be chained’ 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소넷 이전에 쓴 두 편의 소넷 ‘To Sleep’ 과 ‘To Fame’ 은 각운 형태가 이 보다 훨씬 덜 불규칙하다. ‘To Sleep’ 은 abab cdcd bc efef 로 되어 있어 셰익스피어 형식의 변형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To Fame’ 의 각운 체계 역시 abab cdcd efe ggf 로 되어 있어 변화를 모색한 흔적은 역력하나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원형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f by dull...’ 에서는 의미 구조에서나 각운형태에서나 기존의 형식을 파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보다 나은 소넷 스탠자를 발견하려는 그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우선 구조상으로 이 소넷은 3행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네 개의 의미 단위와 2행으로 된 하나의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 즉 압운형태가 abc abd cab cde de 로 되어 혁신적인 형식실험을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형식의 abab cdcd efef gg 와 비교해 볼 때 압운의 수를 7개에서 페트라르카식과 같은 5개로 줄이고 있다. 4개 라임을 두 번, 한 개 라임을 한 번 반복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셰익스피어식의 엇갈리는 압운을 극복하고자 함이다. 셰익스피어처럼 키츠도 압운이 시적 표현을 위해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셰익스피어는 무운시를 채택함으로써 엄격한 소넷 압운의 제약에서 벗어났던 바 키츠는 변형을 실험함으로써 이에 대응한 것이다. ‘To Fame’, ‘To Sleep’ 의 셰익스피어적인 변형에서 ‘If by dull...’ 에서의 혁신적 변형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시형식을 구축하고자 한 키츠의 노력은 치열해 보인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그 자신의 시도가 스스로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성공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형의 시도를 마지막으로 그는 소넷 형식에 의한 시 쓰기를 중단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시적 포부를 성취하기에는 소넷 형식이 너무 많은 제약을 준다는 점과 셰익스피어라는 거대한 인물의 영향을 소넷의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짝막한 몸부림이 너무도 무모하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보아진다. 그러나 그는 짧은 인생동안의 짧은 시작활동을 통해서 전통에 투철하면서도 자기 고유의 위치를 시도함으로써 어떤 시인 보다도 굵은 족적을 영국

시문학사에 남겨 놓은 시인이다.

III.

소넷쓰기에 있어서 셰익스피어는 키츠에게 단연 스승이었다. 키츠는 소넷의 테크닉을 터득하고, 정서적 직관적 통찰력을 표현하며, 예술적 거리와 보편성을 성취하기 위한 시적 장치로서 소넷형식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소넷쓰기에 몰두했다. 이때 셰익스피어는 그에게 교과서적인 역할을 했고 그는 그 교과서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 초기 소넷에서 후기 소넷에 이르기까지 셰익스피어에 대한 모방은 주제, 이미지리, 철학 등에서 광범하게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와 수사적인 패턴에서도 셰익스피어를 모방한 흔적은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1817년 4월 15일 이후에 쓴 28편의 후기 소넷 가운데 16편이 셰익스피어 형식으로 쓴 것인데 세 개의 quatrain과 하나의 결구로서의 couplet이라는 셰익스피어식 수사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이들 소넷들은 셰익스피어적인 울격형태와, 수사 형태를 모방함으로써 음악성은 물론이고 소넷구조에 있어서의 균형, 통일성, 어조의 견실함, 완결성 등을 성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기 소넷에서 키츠는 인생과 예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의 전개를 위해 셰익스피어를 교사로 삼고 있다. 말하자면 소극적 수용력을 배워옴으로써 예술과 현실을 연관지을 줄 알게 되고 이를 자신의 소넷에 구현시킬 줄 알게 된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키츠에게 있어서 문학상의 모델이자 스승으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키츠로 하여금 시인과 시의 본질에 대해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줬을 물론 시의 기법을 터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다.

키츠가 셰익스피어를 시의 형식과 내용을 막론하고 모방 내지는 답습하면서 자신의 시세계를 전개할 줄 알게 된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츠는 실험적인 시형식을 시도함으로써 셰익스피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의 세계 정립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모색을 시발점으로 키츠는 마침내 소넷이 아닌 다른 장르의 시를 통해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셰익스피어라는 거인의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 소넷 쓰기 훈련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Works Cited

- Allot, Miriam, ed. *Keats : The Complete Poems*. New York : Longman, 1970.
- Bate, Walter Jackson. *John Keat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_____. *The Stylistic Development of John Keats*. New York : The Humanities Press, 1958
- Chatterjee, Bhabatosh. *John Keats: His Mind and His Work*. Bombay : Orient Longman, Ltd., 1971.
- De Selincourt, Ernest, ed. *Poems of John Keats*. London : Mathuen Press, 1926.
- Finney, Claude Lee. *The Evolution of Keats' Poetry*. 2 vols. Cambridge ; The Clarendon Press, 1936.
- Heinen, Hubert. "Interwoven Time in Keats' Poetry." *Texas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3 (1961): 382 - 88.

Knights, L.C. "Shakespeare's Sonnets" In *Shakespeare : The Sonnets*, pp. 74 – 101. Edited by Peter Jones. London ; Macmillan, 1977.

Murry, John Middleton. *Keats and Shakespeare ; A Study of Keats' Poetic Life from 1816 to 1820*. London: Oxford UP., 1949.

Rollins, Hyder E., ed.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 – 1821*. Cambridge, Mass ; Havard UP, 1958.

Ward, Aileen. *John Keats; The Making of a Poet*. New York : The Viking Press, 1963.



